



6위서 6언더파 우승 '럭키식스' 이정은

LPGA US오픈 제패... 데뷔 첫 해 '메이저 킴'
11번 '악마의 홀' 연속 버디... 4라운드 대역전극
한국 선수 10번째 우승... 역대 최고 1백만달러 상금

'럭키식스' 이정은(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달성했다. 이정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파71·6천535야드)에서 열린 제74회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쳤다.

단독 6위로 4라운드를 출발한 이정은은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로 공동 2위 유소연, 에이절 인(미국), 렉시 톱프슨(미국)을 2타 차 따돌리고 역전 우승을 거뒀다.

지난해 퀘리파잉스쿨을 1위로 통과하고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이정은이 9번째 출전한 경기에서 거둔 첫 우승이다. 이에 따라 LPGA 투어 신인상에 성큼 다가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데뷔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달성한 이정은은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1억 9000만원) 짝푼도 터뜨렸다.

US여자오픈은 올해부터 우승상금을 역대 최다인 100만 달러로 인상했고, 이정은이 이 상금의 첫 주인이 됐다. 이정은은 US여자오픈 10년간 출전권도 획득했다.

이정은은 선두에 2타 뒤진 단독 6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지만, 빛나는 집중력을 발휘해 짜릿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출발은 좋지 않았다. 1번 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냈

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2번 홀(파4)에서 곧바로 버디로 만회했다.

이후 파 세이브 행진으로 숨을 고르던 이정은은 후반에 본격적으로 버디 사냥에 나섰다.

10번 홀(파4)에는 세컨드 샷이 그린 뒤 러프로 굴러 내려가 위기를 맞아 침착하게 세 번째 샷으로 핀을 바로 공략했다. 공이 컵에 들어갔다 튀겨 나와 버디를 놓쳤지만, 파로 잘 막았다.

가장 까다로운 11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으며 상승세를 탄 이정은은 12번 홀(파4)에서는 1.5m 버디 퍼트에 성공해 연속으로 타수를 줄였다. 이정은은 15번 홀(파5)에서 추가 버디를 잡아 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6번 홀(파4)에 이어 18번 홀(파4)도 보기로 마무리하며 위기가 찾아왔다. 티샷을 러프에 빠트린 이정은은 약 2.5m 파 퍼트를 놓치며 보기를 기록했다.

선두로 경기를 마친 이정은은 1타 차로 추격하던 쉘린 부티에(프랑스)의 마지막 18번 홀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부티에가 더블보기로 무너지면서 이정은의 우승이 확정됐다.

이정은 US여자오픈 11번홀 상황



이정은은 10번째(9명째) 한국인 US여자오픈 우승자다. 앞서 1998년 박세리, 2005년 김주연, 2008~2013년 박인비, 2009년 지은희,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2015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이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정은의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올 시즌 LPGA 투어 한국인 우승은 7승으로 늘었다. 한국계 이민지(호주)를 포함하면 8승째다.

유소연은 이날 1타를 줄이고 최종 4언더파 280타로 공동 2위를 차지, 자신의 올 시즌 최고 성적을 거뒀다. 4라운드에서 1오버파를 친 박성현은 최종 1언더파 283타로 이민지와 함께 공동 12위에 올랐다. 박인비, 고진영, 김세영은 공동 16위(이븐파 284타)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정은이 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US 여자 오픈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7번 그린에서 퍼팅을 한 후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44m 환상 프리킥 기쁨 삭힌 이으뜸

광주 FC, K리그2 안양전 1-0 승... 1위 탈환 이, 첫 득점 주인공... 친정 배려 세리머니 생략

지난 2일 광주FC와 FC안양의 치열한 14라운드 대결이 펼쳐지던 안양 종합운동장이 잠시 정적에 쌓였다.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18분 광주의 프리킥이 진행됐다. 찬스라고 하기에는 골대와는 한참 먼 하프라인을 조금 넘어선 지점에서 진행된 프리킥.

'특급 원발'의 이으뜸이 키커로 나섰다, 잠시 뒤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으뜸이 원발로 띄운 공이 문전에 있던 광주와 안양 선수들의 머리를 넘어 44m의 비행 끝에 골대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안양 골키퍼 최필수가 깜짝 놀라 뛰어올랐지만 손끝을 스친 공은 이내 골망을 흔들었다.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던 광주 선수들도 움직임을 멈춘 채 눈으로 공의 궤적을 좇을 정도로 예상치 못했던 환상적인 골이었다.

팀의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하고 있는 이으뜸은 지난 12라운드 서울이랜드의 경기에서는 킬 패스로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3-1 승리의 조연이 됐다.

1위 탈환을 위해 승리가 필요했던 14라운드 안양과의 경기에서는 직접 골대를 뚫으면서 1-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환상적인 골로 경기장을 뒤집어 놓은 이으뜸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으뜸은 축하를 하기 위해 달려오는 동료들에게 세리머니를 만류하는 손짓을 한 뒤 벤치로 향했다. 물을 마신 뒤 그라운드로 돌아간 그는 골을 넣기 전과 같은 표정으로 남은 경기를 뛰었다.

'친정'을 생각하는 이으뜸의 마음이었다.

이으뜸은 용인대를 졸업한 2013년 안양 유니폼을 입으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다. 2014시즌까지 41경기를 안양 소속으로 뛴 이으뜸은 특급 키 실력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광주로 이적해 K리그1 무대를 경험했다.

군 복무를 위해 팀을 떠나 있던 2017년 광주가 강등이 되면서 이으뜸은 지난해 가을 K리그2에서 군 복귀전을 치렀다.

그리고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친정 안양과 승격 대결을 하고 있다. 자신의 축구 시작점인 안양을 상대로 한 골이었기 때문에 이으뜸은 차분한 세리머니로 득점의 기쁨을 대신했다.

한편 광주는 이으뜸의 환상적인 발로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성공하며 1위 탈환을 이뤘다.

부산아이파크를 승점 2점 차로 따돌린 광주는 느긋하게 A매치 휴식기를 보낸 뒤 16일 오후 7시 부천FC를 상대로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뚫어야 산다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티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전반 오세훈(9번)의 헤더 골 때 크로스도 어시스트를 한 이강인 등 선수단이 그라운드 쪽으로 뛰어 나와 오세훈을 맞이하며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U20 월드컵 내일 새벽 0시 30분 한국 - 일본 16강전

일본 수비진 '3경기 1실점'... 다가와 고스케 등 주축 공격수 전력 이탈

한국과 일본 축구의 미래가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아 월드컵 8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5일 새벽 0시 30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일본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기세는 좋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전에서 공격수 오세훈과 조영욱의 득점포가 터진 게 고무적이다.

에이스인 이강인(발렌시아)도 완벽한 크로스로 오세훈의 선제 헤딩골을 도와 자신의 월드컵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16강까지 전적 2승 1패는 4강 신화를 썼던 1983년 멕시코 대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17년 대회에서 거둔 U-20 월드컵 조별리그 역대 최고 성적이다. 아울러 2실점은 역대 대회 조별리그 최소 실점 공동 1위에 해당한다.

반면, 일본은 다가와 고스케(FC도쿄)가 오른쪽 허벅지 뒷 근육, 사이토 고키(요코하마FC)가 왼쪽 어깨를 다쳐 귀국길

에 오르는 등 주축 공격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에 손실이 생겼다. 멕시코전(3-0 승)에서 두 골을 넣은 미야시로 다이세이(가와사키 프론타레)마저 컨디션 난조로 팀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일본은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면서 4골을 넣는 동안 실점은 1로 묶였다.

에카도르와 첫 경기(1-1 무승부)에서만 실점했을 뿐 이후 연속해서 무실점 경기를 펼쳤다. 에카도르전 실점도 다가와와의 자책골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견고한 수비벽을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다. /연합뉴스